

멜버른, 골목길 녹화 시범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 노력

<http://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laneways-go-green-to-cool-cbd.aspx>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시정부는 멜버른 도심(CDB) 내의 네 개 지역 골목길에 대한 녹화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Green Your Laneway'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골목길을 식재 등을 통해 녹색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공기 질 개선', '우수(雨水) 정화' 등에 활용하고자 진행되었다.

코로만델 플레이스(Coromandel Place)에는 14개의 플랜트 박스가 설치되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기존의 연석과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흙을 도포하고 관개 시스템도 정비하였다. 교통 문제 등으로 녹화가 어려운 공간에는 벽화를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였다.

또 길퍼드 레인(Guildford Lane)에는 골목에 늘어선 창고에 덩굴 식물을 심고 지붕 녹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빗물을 가둬 두고 범람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의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메이머스 플레이스(Meyers Place)는 7층 규모의 주차장을 짓고 그 지붕을 통해 미리 설치된 빗물 탱크로 우수가 모이도록 해서 홍수를 막고 식물의 물을 주는 데도 활용된다. 이 지역은 부분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캐서린 플레이스(Katherine Place)에는 식물을 식재하고, 늘 어선 음식점에 창가 화단 등을 조성하도록 하여 길목에 색을 더하였다.

멜버른 시의회 환경 부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캐시 오크(Cathy Oke)는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쓰레기 수거 트럭이 오가는 공간을 녹색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면서 "200개가 넘는 골목으로 유명한 멜버른시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고 도시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멜버른 시정부는 지역마다 적절한 녹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 사업자와 주민들 등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네 개 대상지 중 세 곳은 부분적으로 차량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반통행로로 조성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만델 플레이스 계획

자료: <https://participate.melbourne.vic.gov.au/greenlaneways>



메이머스 플레이스 계획